

말라리아 예방 요령 Q&A

Q 말라리아가 무엇인가요?

A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.
우리나라는 말라리아 발생 국가로 매년 300명~400명의 환자가 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합니다.

Q 말라리아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?

A 초기에는 오한, 발열, 발한 등이 나타나고, 48시간 주기로 반복됩니다. 두통, 설사,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

Q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있나요?

A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린 뒤 짧게는 7일, 길게는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Q 말라리아 예방접종은 있나요?

A 말라리아 예방접종은 없습니다. 그러므로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 또한, 말라리아 치료를 한 이후에도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재감염에 주의하여야 합니다.

Q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말아야 합니다. 말라리아는 모든 모기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만 감염됩니다.

Q 말라리아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
A 말라리아는 치료제가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 빠짐없이 약을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. 말라리아 원충은 혈액과 간에 존재하게 되며, 완벽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 재발할 수 있습니다.

Q 열이 내려도 치료약을 모두 복용해야 하나요?

A 말라리아 치료약을 드시면 증상이 약 3일 이후 완화되지만,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치료약을 규칙적으로 모두 복용(17일)하여야 재발하지 않습니다.

클로로퀸	프리마퀸
효능 : 혈액내 원충 제거 복용 : 진단 후 처음 3일간 복용	효능 : 간내 원충 제거 복용 : 클로로퀸 3일 복용 종료 후 2주간 매일 1알씩 복용

※ 주의사항

- 말라리아 치료약을 모두 규칙적으로 복용하여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
-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다시 여행하거나, 거주, 직장 근무를 하여 모기에 물리게 되면 재감염 가능 .

Q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
A 첫째, 방충망을 정비하시고 모기장을 사용해 주세요!

방충망이 있더라도 손상되어 모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충망의 손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 또한 방충망이 있더라도 모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기장 사용이 안전합니다.

둘째, 집 주변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가 있는지 살피고, 고인 물을 꼭 제거하여 말라리아 모기 유충이 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.

셋째,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(3~4시간 간격) 뿌려주세요

넷째,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(일몰 직후~일출 직전)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

다섯째,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여 땀이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.

Q 말라리아 모기는 언제 활동하나요?

A 말라리아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대(밤 8-10시 및 밤 12시- 새벽 4시)에는 야간 활동을 반드시 피하여야 합니다. 한번의 야간활동 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야간활동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긴소매, 긴바지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얼굴 주변을 피해 옷에 기피제를 뿌리시길 바랍니다.,

Q 말라리아 주요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?

A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휴전선 인근지역인 인천, 경기, 강원 북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Q 장마 이후에 말라리아 모기가 증가하나요?

A 장마 이후에는 모기서식지가 증가하여 말라리아 모기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※ 예방 행동 안내

- 집주변에 장마로 인해 생긴 웅덩이에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웅덩이 물은 바로 치우기
- 집주변의 페타이어, 빈깡통 등에 물이 고이면 즉시 치워서 모기가 서식처 제거

Q 말라리아가 타인에게 전염이 되나요?

A 사람 간 전파되지는 않으나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말라리아 환자를 물면 감염력을 갖게 되어 감염되지 않은 주변인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.

Q 주변에 말라리아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말라리아 치료 중에는 모기기피제, 모기장을 사용하여 모기에 의하여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 환자와 가까운 주변인들은 모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★★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활동 만으로는 말라리아 모기를 모두 없앨 수 없으므로, 개인의 예방 수칙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★★